

세계 역사학자 187명 “아베, 위안부 왜곡 말라”

브루스 커밍스 등 “용기있는 日 역사가 지지” 성명

아베 ‘과거사 사과·반성 외면’ 訪美행보 국제적 역풍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석달전인 지난 2월5일 미국 사학자 20명의 집단성명 발표에 이은 세계 역사학계의 대규모 집단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플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비스(미국 방업턴대학), 디어더어 록·하루코 다야 록(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 존 다우어(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를 비롯해 에즈라 보겔(하버드대), 브루스 커밍스(사카고대), 피터 두스(스탠포드대) 등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일본학 전공 역사학자 187명은 이날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공개했다.

이 성명은 외교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도 직접 전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연구자들은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역사를 추구하는 일본의 용기있는 역사학자들과의 연대를 표한다”며 “전후 일본에서 이뤄진 민주주의와 자위대의 문민통제, 원칙있는 경찰 운영 및 정치적 관용은 과학에 대한 기여와 다른 나라에 대한 관대한 원조와 함께 모두 축하해야 할 일들이지만 역사해석의 문제는 이런 성과를 축하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첨예한 과거사 문제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피해 국가에서 민족주의적인 목적 때문에 악용하는

일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피해 여성의 존엄을 더욱 모독하는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일 또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부 역사가들이 제국주의 일본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성이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강요받았는지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며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혔고 끔찍한 야만행위의 제물이 됐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는 일본 정부가 말과 행동으로 식민 지배와 전시 침략 행위를 다룸으로써 일본의 지도력을 보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의 합동연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도적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가했던 고통을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모두에서 과감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모두 사학계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스 교수는 지난 2001년 태평양 전쟁 전후의 일본 현대사를 다룬 ‘히로히토와 근대일본의 형성’이라는 저서로, 쿡 부부 교수는 1992년 위안부와 관련된 구술이 담겨있는 ‘전쟁중인 일본’이라는 저서로, 다우어 교수는 2000년 ‘패배를 껴안고’라는 저서로 플리처상을 수상했다.

또 보겔 교수와 커밍스 교수, 두스 교수를 포함해 데즈오 나지타 시카고대 교수와 아카리 이리에 하버드대 교수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중요한 상들을 수상한 인물들이다.

이 같은 국제 사학계의 집단성명으로 지난달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외쳤던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가 커다란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오는 8·15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를 발표하려는 아베 총리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IS ‘미국판 샤를리 에브도’ 자처에 미국, 테러 우려 확산

백악관 “현재 조사 진행 중 IS 연계 여부 단정 못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 인근 갈랜드의 모하마드 만평 전시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다시 테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판 샤를리 에브도’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테러 단체 가입을 시도한 미국인 이슬람교도인데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IS가 지난달 초·중순부터 인턴샷에서 ‘제2의 9·11’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격이 발생해 미 보안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으로선 텔라웨어 주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을 겨냥한 정체불명의 총격 사건이 있던 지난 1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테러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든 모양새다.

미 당국은 5일 현재 범행 동기와 더불어 이들 범인 2명과 IS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자발적 공격과 IS의 사주 또는 직접 지시를 받은 계획된 테러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연합뉴스

만에 하나 IS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첫 직접 테러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테러 공포는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은 사망한 두 명의 범인이 IS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권에선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에선 그동안 테러 위협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군이 지난해 8월부터 IS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하면서 IS의 직접 대미 보복공격 가능성과 더불어 이들에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 우려가 고조돼 왔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거주 크리스토퍼 코넬(20)이 미의 사당에 대한 총격 테러를 기도했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전격 체포됐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코넬은 IS를 추종해 온 전형적인 외로운 늑대 유형의 인물로, 의사당 총격테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신시내티 자택 인근 총포상에서 반자동 소총 2정과 실탄 600발을 구입해 나오다가 체포됐다.

FBI가 50개 주 전역에서 IS에 합류하려고 시도하거나 IS를 돕는 이른바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뉴스

네팔 지진 10일째...산간마을 시신 수습 등 구호활동 본격화

이재민 대책·재건 전력

상점들 다시 문열고

각급 학교 수업 재개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그동안 고립됐던 산간 마을의 시신 수습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네팔 정부는 생존자 구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재민 대책과 재건 등 구호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수도 카트만두는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구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량당 등 산간 마을 대부분 매몰=히말라야 트레킹 관광지인 유명한 량당에서는 수색·구조작업이 본격화하며 시신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팀은 지난 2~3일 눈에 묻힌 시신 100여구를 수습한데 이어 5일에도 외국인 9명을 포함한 60구의 시신을 추가로 찾아냈다.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는 관광객이 주로 찾은 이곳에서는 산사태로 마을 대부분이 매몰됐다.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만 200명가량의 주민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트만두 인구 3분의 2로 줄어=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지진 발생 이후 카트만두에선 여진 공포에 시달리다 고향마을의 피해복



지난 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 구조대와 네팔 군인들이 건물 잔해에 묻힌 지진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파편을 옮기기 위해 줄을 잡아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구를 지원하려고 주민 90만명이 거주지를 떠났다.

랄리푸르와 바크타푸르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50만명에 달했다.

지진 직후 카트만두 버스터미널엔 고향집을 찾아나선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5일 현재에도 여전히 터미널엔 버스 탑승을 대기중인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구호 작업 속 주민 정상 생활 찾아가=카트만두 탈출 행렬과는 달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트럭들은 매일 식료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지진 이후 휴교 상태였던 각급 학교도 오는 14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바세리, 붓다름, 다르카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당한 지역에도 구호의 손길이 닿고 있다.

스태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각국 수색·구조팀이 네팔을 떠나려고 하지만 다음 단계를 향한 국제사회 지원은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네팔 전역에 5곳의 물류허브를 추가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화산공포 확산

하코네 일대 분화경계경보 1→2로 상향

일본 기상청은 6일 오전 6시를 기해 일본 하코네야마(箱根山)의 화구 주변 경보를 발표하고 분화경계수준을 평상시인 1에서 화구 주변규제에 해당하는 2로 올렸다.

기상청은 전날 하코네마치(箱根町)의 온천 관광지인 유모토(湯本)에서 진도 1에 해당하는 지진이 3차례 발생했으며 경사계에서 지진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묘한 변화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하코네야마의 화산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지대인 오와쿠다니(大涌谷)에서 벌인 조사에서 증가가 평소보다 강하게 분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하코

네야마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오와쿠다니 일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규모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은 분화와 더불어 돌풍이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코네마치는 이에 따라 오와쿠다니 반경 300m 범위에 대해 피난지시를 6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와쿠다니 근처를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도쿄(東京) 도심에서 약 80km 거리에 있는 오와쿠다니는 방문객이 화산가스를 근거리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며 온천수로 삶은 검은 달걀이 유명한 관광지다. /연합뉴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